

보도 일시	2023. 1. 16.(월) 11:00 < 1.17.(화) 조간 >	배포 일시	2023. 1. 16.(월)
담당 부서 <총괄>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성화 (044-203-4360)
		담당자	서기관 박희범 (044-203-4365)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 ◇ **실물경제 위기극복 및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주역으로 육성키로,**
- ◇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확충, 수출 2,000억불 달성 목표**
- ◇ **①글로벌 진출, ②공급망 안정, ③디지털전환에 R&D 1.5조원 투입(~'3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국정과제 17)”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실물경제 위기 극복과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정부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기업수 5,480개사, 수출 1,138억불, '21 기준)

- 이를 위해 「1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①글로벌 진출, ②공급망 안정, ③디지털전환에 향후 10년간 R&D 약 1.5조원(총사업비 기준)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박일준 2차관은 16일 새해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인천 송도에 있는 엠씨넥스를 방문해 중견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중견기업 성장 정책 비전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16.(월) 14:00~15:30 / 엠씨넥스 (인천광역시 송도)
- 참 석 자 : (산업부) 박일준 2차관, 중견기업정책관 등
(민간) 중견기업(6개사), 중견기업연합회, KOTRA, KIAT, 무역보험공사
- 주요내용 : ①「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및 업계 의견 청취
②중견기업 산업 현장 시찰(엠씨넥스, 스마트폰·차량용 카메라 제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은 글로벌 수요 위축, 고금리 등으로 수출과 투자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허리이자 높은 성장성을 지닌 혁신 기업군으로서 중견기업 육성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 글로벌 금융위기('09)時 대기업보다 2배 빠른 회복, 日수출규제('20)時 對日 의존도 완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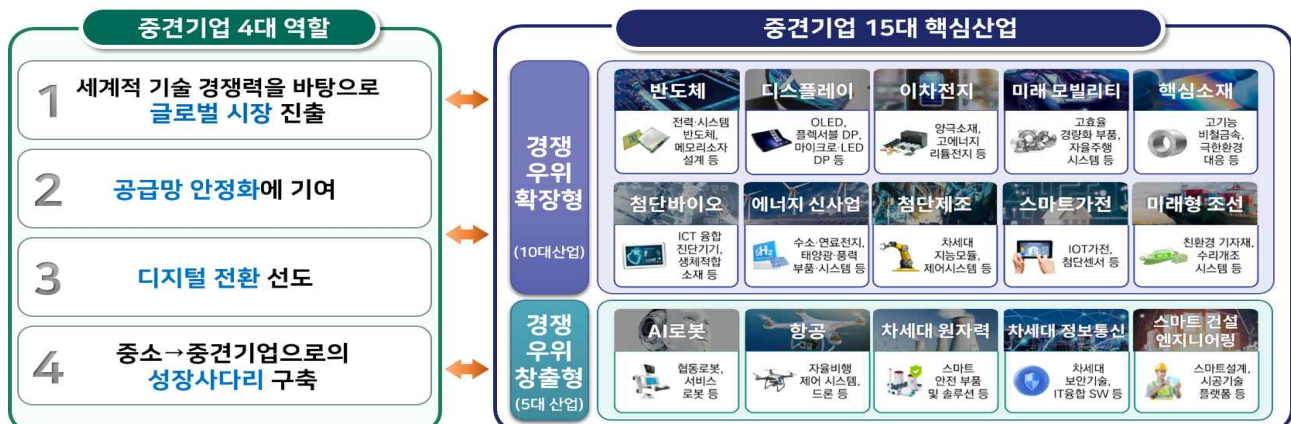
- 특히 지난 10여년이 중견기업을 위한 법, 지원 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중견기업이 본격적으로 양적·질적 성장할 수 있도록 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 방위적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비전을 담았다.

【 2030 중견기업 성장 목표 】



- 전략의 주요 방향은 중견기업이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성장해 더욱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성장 촉진형 제도 기반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①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중견기업 4대 전략적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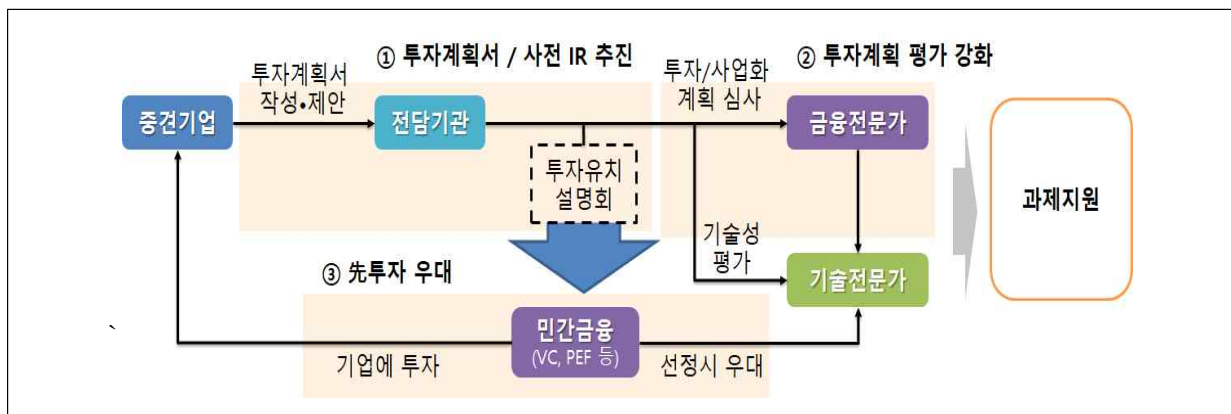
- 첫 번째 핵심 정책 방향은 중견기업이 산업생태계 내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전환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이라는 4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추가 되는 선도 기업군 육성이다.
- 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에 2033년까지 1.5조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해 각 분야별로 100~150개 선도 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15대 핵심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진입(성장사다리) 속도를 높이는 지원트랙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매년 100개씩 「고성장 혁신 기업」 1,000개사를 선정하고 R&D, 수출, 인력 등 중기부와 산업부 사업들을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분야	주요방향
① 글로벌 시장 진출	•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선도 기업」 150개사 육성 •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기간 '21.~'33, 총사업비 9,135억원)
② 공급망 안정화	• 공급망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생태계를 리드하는 「공급망 선도 中堅」 100개사 육성 • 중견·중소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기간 '23.~'32, 총사업비 5,855억원)
③ DX 변화 대응	• 빅데이터, AI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선도 중견기업 육성 및 산학협력 강화 • 중견 D.N.A 융합 산학협력('22~'26, 총사업비 479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예산 확보 추진
④ 성장사다리 확충	• 산업·중기부 공동으로 「중소→중견 성장 유망분야」 선정 • 「고성장 혁신기업」 1,000개사(年 100개사 내외) 선정('23) • 산업·중기부의 R&D, 인력, 수출 등 既 운영중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고속성장 트랙」을 신설하여 우대('24~)

② 중견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①신사업 발굴→②기술 확보→③투자·재원 확보 등 전 구간에 걸쳐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신사업 발굴)** 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와 만나 신사업·신기술 아이টে을 찾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얼라이언스, 산학연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술 확보)** 기술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 R&D를 “신청→평가→선정” 전주기에 걸쳐 투자 촉진형으로 전환하여, △R&D 신청시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금융과의 사전 투자유치 설명회(IR)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 단계에서 금융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며, △사전에 투자를 받은 기업은 R&D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 **(투자·재원확보)**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자원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 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천억원 규모의 1호 펀드(子 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형 제도 기반 조성**

□ 세 번째 정책 방향은 △법, △성장 걸림돌 규제, △인력 등의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새로운 지원 특례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 中小 : 중소기업기본법(상시법), 中堅 : 중견기업특별법('24.7 일몰), 大 : 공정거래법(상시법)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견기업계가 발표(11.7,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한 향후 5년간 160조원(~'27)의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개최되던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권역별(수도권+충청·호남·영남 등)로 확대 개최하고, 지방 중견기업 채용과 연계하여 대학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7월),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9월)

**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23~'28, 414억) : 석박사 인재 양성 후 중견기업 의무 취업

□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겪고 있는 애로들을 공유하며 금융 지원, 지방 인재 채용, 세제 지원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간담회에 앞서 박일준 2차관은 차량용 카메라 국내 1위 및 세계 5위 중견기업인 엠씨넥스를 방문하여 R&D 현장을 둘러보고,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매진하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 이날 박일준 2차관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서 중견기업의 위상”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역설했다.
- 특히 “수출 플러스 달성은 올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제1화두”라고 언급하며, “중견기업은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만큼 앞으로 수출을 선도하는 첨병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 【붙임】 1. 중견기업 산업현장 간담회 행사개요
 2.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비전 및 추진방향
- 【별첨】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PPT)

담당 부서 <총괄>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성화 (044-203-4360)
		담당자	서기관	박희범 (044-203-4365)
		담당자	사무관	최재홍 (044-203-4361)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준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윤재웅 (044-203-4371)

붙임1

중견기업 산업현장 간담회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1.16(월) 14:00~15:30, 엠씨넥스 본사(인천 송도)

□ 주요 참석자

- (정부) 산업부 2차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장, 중견기업 지원과장 등
- (업계) 중견기업 및 후보기업(6개사), 유관기관(4개 기관) 등

구분		기업·기관	참석자
기업(6)	글로벌 진출	엠씨넥스	민동욱 대표이사
		코넥	이광표 부회장
	공급망 선도	엘앤에프	최수안 대표이사
		이녹스첨단소재	김경훈 대표이사
	DX 선도	제우스	이종우 대표이사
	후보 중견	그린파워	조정구 대표이사
유관 기관(4)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KIAT	민병주 원장
		KOTRA	김윤태 부사장
		무역보험공사	윤종태 본부장

□ 세부계획

구분	소요시간	일 정	비고
①현장방문 (20')	14:00 ~ 14:20 (20')	엠씨넥스 현장 방문	
②정책발표 및 업계 간담회 (70')	14:20 ~ 14:22 (2')	기념 촬영	
	14:22 ~ 14:25 (3')	인사말	산업부 2차관
	14:25 ~ 14:33 (8')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중견기업정책관
	14:33 ~ 15:28 (55')	업계의견 청취 및 토론	
	15:28 ~ 15:30 (2')	마무리 발언	산업부 2차관

붙임2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World Best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견고한 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지원 원칙

- ◇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화 등 中堅의 **산업 중추역할** 강화
- ◇ 신사업 투자 등 **도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Risk 분담
- ◇ **민간(앵커 中堅, CVC, PEF 등)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혁신 자극

3대 전략 10대 과제

1.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中堅 4大 전략적 역할」 강화

- 역할①**
① **글로벌 진출** 「수출 선도기업」 육성(150개社) 및 수출 지원 체계 구축
- 역할②**
② **공급망 안정화** 중견·중소 Value Chain을 이끄는 「공급망 선도기업」
- 역할③**
③ **DX 변화대응** D.N.A로 New Biz를 창출하는 「DX 선도기업」
- 역할④**
④ **성장사다리 확충** 앵커 中堅으로 고속 성장하는 「고성장 혁신 기업」

2. 中堅의 자발적 혁신·도전을 유도하는 **소주기적 체계** 구축

- ① **신사업 발굴**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발굴 기회 확대
- ② **기술 확보** 투자 촉진형·민간 참여형 中堅 R&D 추진
- ③ **투자 확보** 「中堅 도약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신사업 투자 지원

3. 중견기업 **성장촉진형 인프라** 조성

- ① **중견법 정비** 「중견기업법」 재정비 및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내실화
- ② **걸림돌 해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③ **인재 확충** 지방 중견기업 인력 확충을 위한 시스템 구축